2010시민교육 아태대회, 3일간 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와 미국 시민교육센터(CCE, 사무총장 찰스 퀴글리), 3 · 15의거기념사업회(회장 백한기)가 공동주최하는 2010 시민교육 아태대회가 지난달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경남 창원 사보이호텔에서 열렸다.

'갈등사회를 넘어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시민교육, 특히 민주시민교육이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과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례와 국내의 시민교육을 주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교육사례를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교육〉 3호(12. 1 발간 예정)에서 볼 수 있다.

1

2

3

1. **개회식** 10월 20일 시민교육 아태대회 개회식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2. 시민교육 아태대회 개회식에서 공동개최 기관인 미국시민교육센터의 찰스 퀴글리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지난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 에서 입상한 청소년 학생들이 아태대회에서 발표를 재연하고 있다.

4. 시민교육 아태대회 발표에 대해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참가자들

5. **발표모습** 시민교육 아태대회에서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6. **폐막 공연** 22일 시민교육 아태대회 폐막 만찬에서 놀이패 '어처구니'의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7. **질문하기** 시민교육 아태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이 발표자에 질문을 하고 있다.

4월혁명 사료총집의 발간 경과와 구성

4월혁명 50주년 준비

2010년은 4월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를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해 사업회는 2009년부터 '1960년대 한국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의 하나로 4월혁명 사료총집 발간을 기획· 준비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2009년 3월 발간기획위원회를 꾸렸다. 한국현대사 전공 역사 · 정치 · 사회학 교수 등 5인(서중석 김동춘 정해구 박명림 홍석률)과 당연직으로 정근식 연구소장, 박문숙 사료관장 등 7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한국현대사 전공자를 중심으로 사료총집 사료조사팀을 구성해 국내외 사료의 분포상황을 예비조사했다. 주로 부정선거 관련 사료, 재판기록, 국회 마산사건 진상조사, 해외 사료 및 해외 언론 보도, 국가기록원 소장 사료 등을 조사해 '4월혁명 사료조사 목록집'을 작성했다.

편집위원회, 발간위원회의 구성

4월혁명 50주년이 되는 2010년 1월을 맞아 사업회는 발간기획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전환하고, 일지 작성과 사료선별수집을 위해 전문 연구진을 구성했다. 또한 사료총집을 발간하는데 4월혁명 기관 · 단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4월혁명 제 단체와 공동협의를 진행했다. 이제 '4월혁명 사료총집' 발간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조직되는 것이 필요했다. 이기택(4월혁명50주년 기념사업회장),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인의 공동위원장과 50인의 발간위원(박관용 고문 등 50인)으로 구성된 발간위원회 출범식을 2010년 3월 개최했다. 이와 함께 편집위원으로 김용호 · 허은 교수를 보강했다. 9월에는 사료총집 가제본을 제작하여 4월혁명 사료총집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료총집의 구성과 편제

4월혁명 사료총집은 모두 8책으로 되어 있다. 1책은 일지이고, 2책에서부터 7책까지는 사료를 영인하여 수록했고, 8책은 사진기록을 수록했다. 총집에 수록된 시기 범주는 1959년 12월부터 1960년 5월까지로 했다. 각 책별 구성을 보면,

1책 '일지'에는 1959년 12월부터 1960년 4월 27일까지의 시위상황과 정치사회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2백자 원

고지 6,200여장에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2책 '정부 · 국회 · 정당 기록'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회의 계엄사령부 등의 정부 기록, 국회 조사보고서 등 국회 기록, 자유당 · 민주당 등의 정당 기록, 대한변호사협회의 3 · 15마산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3책 '신문기사'에는 중앙일간지로 동아 · 서울 · 조선 · 한국 · 경향신문 등의 기사가, 지방일간지로 강원 · 국제 · 기호 · 대구매일 · 대전 · 마산 · 부산 · 영남 · 전남 · 중도일보 등의 기사가 수록되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중앙일간지의 경우 여러 신문을 공정히 배분하여 수록하려고 했지만 부정선거 · 시위 등을 자세히 보도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었으며, 정부쪽 입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신문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지방신문은 일반 독자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고자 했다.

4책 '재판기록'에는 부정선거 관련 재판, 발포사건 관련 재판, 4 · 18고려대생습격사건 재판 등 재판 기록이 많아 부득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부를 선별해 그 사건의 검찰 공소자료, 판결문 원본 등을 수록했다.

5책 '선언 · 성명 · 수기'에는 선언문 성명서 일기 등과 개인 수기, 좌담, 취재기록, 자유당정부통령후보 지지 성명 등이 수록되었다.

6책 '외국 기록'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청 소장 기록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공문서와 신문 기사를 수록했다.

7책 '사상자 기록과 수습 활동'에는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과 그들의 활동 자료, 학생대책위원회 등의 수습 활동, 위령제 관련 자료가 수록되었다.

8책 '사진기록'에는 2 · 28대구학생시위에서부터 4 · 26 시위에 이르기까지의 시위 사진, 선거운동과 부정선거 관련 사진, 4 · 26 이후 이기붕 일가의 자살, 이승만의 이화장 이사와 망명, 학생들의 수습 활동과 위령제, 재판 관련 사진 등을 수록했다.

사료총집에 미수록된 자료는 DVD에 수록해 연구자나 4월혁명에 관심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간보고대회

사료총집은 10월 현재 편집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11월 15일을 발간일로 예정하여 전 8책 500부로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다. DVD는 3,000장을 예정하고 있다. (사)3 · 15의거기념사업회, 연세대 박물관, 고려대 기록자료실, 서울시립대 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에서 상당량의 사료를 제공해 주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년간 편집위원 및 연구원들의 노력은 사료총집의 결실을 맺는데 결정적인 힘이었다.

11월 28일에는 대국민 발간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1부에는 4월혁명 50주년과 사료총집 발간의 의미를 총점검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2부에는 발간보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비판을 기대한다.

(글 ·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묻다 – 민주주의 강의 4: 현대적 흐름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민주주의 강의 4: 현대적 흐름』 편을 발간했다. 총 4권으로 기획된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상을 다룬 제1권과 제2권은 2008년에, 민주주의의 제도를 다룬 제3권은 2009년에 출간된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4권은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권으로 이전의 1~3권이 다루지 못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흐름과 현재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설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기획한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주주의 강의 4: 현대적 흐름은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문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망하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산 또는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과제와 함께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열려

지난달 12일, 서울 청계천6가 전태일 다리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사업회

에서는 함세웅 이사장과 유영표 상임부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여해 열사의 뜻을 기리고 40주기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회 직원들은 행사장 인근에서 서울시에 현재 버들다리를 전태일다리로 명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부마민주항쟁 제31주년 기념식과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제31주년 기념식과 토론회가 경남 창원(구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식에 신형식 교육사업국장 등이 참여했고, 토론회에는 이종률 기념사업과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제3회 민주가족 등산대회에 초대합니다.

11월 6일,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들을 모시고 **민주가족 등산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구룡산**을 함께 오르고 부근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에서는
운동회, 보물찾기, 문화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셔서 눈이 시리도록 높은 늦가을 하늘과 대청호에 비친 단풍의 흥취도 만끽하시고 민주화운동
참여자로서의 자긍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시** 2010 11. 6(토) 오전 10시 50분(행사장소 집결시간)
-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과 인근 구룡산(373M)
- **집결지**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동편광장
- **출발지** 지역별로 추후 공지
-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주관**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참여자**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어린이, 청소년 환영)
-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등산(2시간) / 산책(1시간, 노약자) / 운동회 / 보물찾기 / 문화공연 등

-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유기농 뷔페(점심)를 제공합니다.**
- **행사문의 : 02-3709-7611, 7613(기념사업국)**

- **서울지역 출발 시간 / 장소**
  2010. 11. 6(토) 오전 8시 / 기념사업회 부근 우리은행 앞